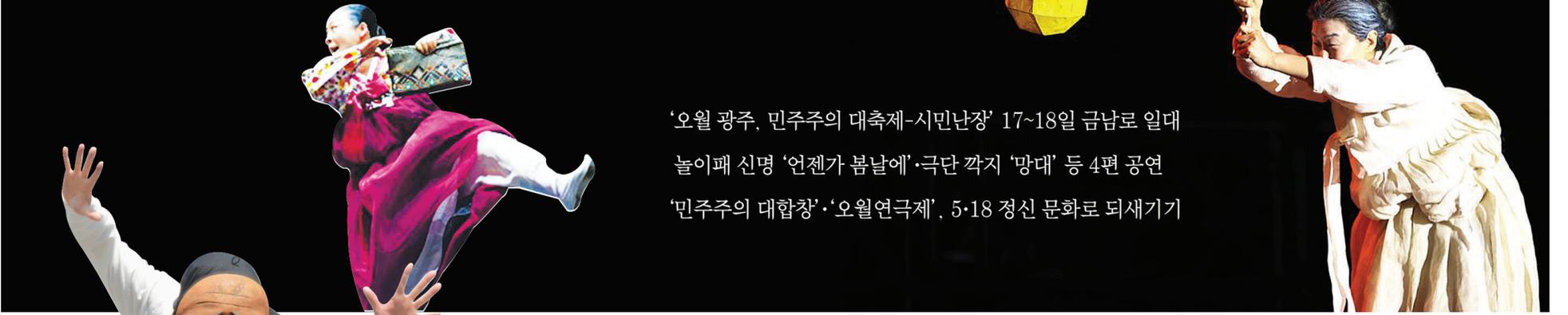


더 뜨겁고 더 애절한 '무대 위 오월'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시민난장' 17~18일 금남로 일대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극단 깍지 '망대' 등 4편 공연
'민주주의 대합창'·'오월연극제', 5·18 정신 문화로 되새기기

5·18을 주제로 한 '오월연극제'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일빌딩245 9층에서 펼쳐진다. 놀이패 신명(왼쪽)과 푸른연극마을의 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삶의 언어와 몸짓 그리고 신명나는 굿판과 뜨거운 노래가 5·18정신을 다시 불러낸다.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전일빌딩245 9층 다목적 강당에서 펼쳐지는 '오월연극제'에서다. 이번 연극제는 17일~18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진행되는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시민난장' 일환으로 기획됐다.

특히 광주의 대표 극단 네 곳이 한자리에 모여 5·18정신을 작품으로 상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광주시와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연극제에서는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를 비롯해 극단 토박이의 '오! 금남식당', 극단 깍지의 '망대', 푸른연극마을의 '나와 어머니와 망월'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각기 다른 형식과 시선으로 5월 메시지를 담아낸 작품들은 45주년을 맞은 광주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의미 등을 풀어낸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놀이패 신명

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끝나지 않은 광주의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해학과 굿판이라는 전통적 형식으로 구현했다.

이야기는 늙은 무당 박조금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굿판을 마치고 돌아오던 박조금 앞에, 1980년 5월 암매장된 뒤 이승을 떠도는 시민군, 백구 두 여인, 여학생의 영혼등이 나타난다. 영혼들의 모습을 통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웃음과 풍자로 풀어내며,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바람을 담아낸다.

이어 오후 1시에는 극단 토박이가 '오! 금남식당'을 선보인다. 금남관 주인 오금남이 식당을 물려줄 새 주인을 찾기 위해 요리 경연을 연다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작품은, 경쾌한 전개 속에 오월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여낸다. 후보자들은 경연의 마지막 미션으로 '주먹밥 만들기'를 하게 되고, 오금남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5·18 당시의 주먹밥 나눔 이야기를 들려준다. 요리 경

연이라는 모티브에 노래, 춤, 퍼포먼스를 결합해 5·18의 나눔과 공동체 정신을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낸다.

극단 깍지의 '망대'는 오후 3시 30분 관객들을 만난다. 광대가 푸대자루 속 주인 잃은 신발들을 하나씩 꺼내 신어보며 마치 영혼이 깃든 듯 그 신발이 품은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내용이다. 구두를 신고 탭댄스를 추다 계엄군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노점상의 신발을 신은 채 봄나물을 팔다가 시위대를 숨기거나 주먹밥을 나눠주는 등 신발 하나하나에 담긴 오월의 기억을 광대의 몸짓을 통해 구현한다. 작품은 오월 영령들을 위로하고, 평화와 왜곡, 책임자 처벌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에 대한 성찰과 바람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는 푸른연극마을의 '나와 어머니와 망월'이 상연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과 그리움을 애절하게 그려낸 연극이다. "아직까지 구천을 떠돌고 있을 불쌍한 내 새끼 빠다구라도 만져볼 수 있

다면 딱 지금 눈이라도 감을 것이요" 주인공은 무당이자 어머니인 인물로, 매년 망월고개를 넘어 자식의 넋을 부르며 굿을 펼친다.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오가는 굿판은 희생자를 위무하는 동시에 그리움과 연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시민난장 기간에는 오월연극제 외에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들이 금남로 곳곳에서 펼쳐진다.

17일 오후 3시 30분, 5·18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는 '민주주의 대합창'이 열린다. 광주 오월어머니합창단, 부산 박종철합창단, 서울 이소선험창단, 안산 416합창단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7개 합창단이 참여해 국가폭력과 재난 희생자들의 아픔을 노래로 표현하고 나눈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는 "민주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펼쳐지는 축제가 세대를 넘어 함께 어울리며 5·18 정신을 문화와 예술로 되새기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극단 깍지 '망대' 공연

탄소중립 창작극 운영 지원사업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단체 모집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 예고 없이 쏟아지는 폭우.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 무대 위에서 기후 이야기를 전할 예술단체를 찾는다.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탄소중립 창작극 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단체를 모집한다. 오는 30일까지.

이번 공모는 광주시의 '2045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발맞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후 또는 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극을 보유한 광주 지역 예술단체다. 신청은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창작극 영상 자료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1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단체에는 150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해당 단체는 창작극을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과 지역 환경 이슈에 맞게 각색해 6개월간 시민 대상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고상연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장은 "문화예술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다 쉽게 전하고, 세대 간 공감 속에 탄소중립 실천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길 바란다"며 "지역 예술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림자가 아름다운 사람

gallery of LAAM, 6월 15일까지...김은미 등 30명 작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그림자가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긍정성을 표현한 말이다. 사람을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귀히 여기고 본질을 추구하는 이들을 말한다.

'그림자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도 은유적인 표현이다. 사람과 그림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림자가 아름답다'는 것은 존재로서의 사람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함의돼 있다.

gallery of LAAM(관장 황영일)에서 '그림자가 아름다운 사람LAAM'이라는 주제의 전시

(오는 6월 15일까지)가 열려 눈길을 끈다.

동구문화관광거버넌스, 김은미 작가 등 30명이 주관하며 '그림자'와 'LAAM'이라는 상징적 어휘를 모티브로 펼쳐진다. 당초 컬처호텔이라는 명칭의 토대가 된 'LAAM'은 사람을 비롯해 보람, 요람 등 인간의 삶과 감정을 품은 말 '람'에서 비롯됐다.

서로 다른 배경과 색채를 보유했던 작가들은 '사람', '그림자', '머무름'을 주제로 자신만의 그림을 선사한다. 김선화, 김성수, 노정숙, 문승일, 문창성, 박경희, 박귀민, 박미숙, 배일섭, 백성

혜, 서은선, 성유진, 손문익, 은애란, 이정민, 정운광, 조희규, 천수연, 최경자, 황영일 등 30명이 참여한다.

전시에서 '그림자'는 그림 그리는 사람, 예술가를 상징하며 작가의 내면과 삶의 여정을 포괄한다. 황영일의 '변하지 않을'은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의미 등이 발현되는 작품이다.

결국 '그림자가 아름답다'는 것은 본질인 사람의 내면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나아가 그것은 곧 예술로 전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황영일 관장은 "이번 전시는 호텔과 갤러리가 만나는 미적 토대 위에서 펼쳐진다는 데 특징이 있다"며 "창작자의 그림자가 관람자의 감성과 조우하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황영일 작 '변하지 않을'

'제7회 조태일문학상' 공모 6월 30일까지

곡성 출신의 죽형(竹兄) 조태일 시인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대표 민족·민중시인으로 꼽힌다.

1969년 '시인' 지를 창간해 김지하를 비롯해 양성우, 김준태, 채광석,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1980년 계엄령 전국 확대에 앞서 감금한

예비 검속자에 포함돼 수감되기도 했지만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올해도 시인의 시정신과 삶을 기리는 '제7회 조태일문학상 공모'가 진행된다. 상금은 2000만 원이며 접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번 공모는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와 곡성군이 주최하고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창비, 문화들이 후원한다.

희망지는 최근 2년 이내(2023년 6월 1일 이후) 발간한 시집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또는 추천위원의 추천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수상 시인은 시 전문지인 '시인'에 수상 작품, 대담 등이 소개되며 시상식은 오는 9월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리는 시인 26주기 문학 축전에서 펼쳐진다.

황형철 사무국장은 "곡성 출신의 죽형 조태일 시인은 암울한 시대 민주와 자유를 울컾은 목소리로 외쳤을 뿐 아니라 시를 매개로 많은 후배 시인들을 발굴하는 등 한국시단을 풍성하게 이끌었던 남도의 대표 시인"이라며 "시인의 삶과 정신을 기리고 이어갈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투고돼 송고한 뜻이 확산되고 공유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곡성군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